

MISSION OF GRAVITY

헬 · 클레멘트(HAL CLEMENT)작

행성 메스클린은 우주에서도 신기한 세계이다. 질량은 목성의 약 16배. 따라서 표면重力은 굉장히 클테데 自轉주기 17분 45초라는 고속회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회전 탓으로 遠心力이 작용하여 행성전체가 평평한 타원체로 바뀌어 極地에서 6백G를 넘는 重力도 적도 근방에서는 겨우 3G에 지나지 않다.

이 행성은 메탄의 바다에 水素로 된 大氣 그리고 기온은 평균 섭씨 영하 170도 안팎이다.

이 행성에도 그런대로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가진 원주민-메스클린인-이 있었다. 키는 18인치에 지나지 않는 지네를 닮은 생물이다.

그러한 생태의 행성의 交易船-이라고 해도 길다란 뿔목이지만-블리號의 선상에서 항해장 돈드라그마는 선박의 마스트 곁으로 온몸을 수직으로 뻗치고 날카로운 가위 모양의 뿔줄을 조르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블리號가 메스클린인들의 표준으로 봐서 거의 무중력에 가까운 <세계의 변두리>-赤道지대-까지 와있기 때문이다.

선장 발레난은 선박의 꼬리 근처에 설치된 TV 카메라통신기를 통하여 위성궤 도위에 있는 플라이어(空人) 찰즈·랙랜드와 교신하고 있었다.

이 행성을 찾아온 지구인 조사대는 우선 北極點에 가까운 곳에 무인탐사로켓트를 연착시켰는데 무서운 高重力때문에 고장을 일으켰는지 전파지령에 반응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려가서 조사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가까스로 低重力의 적도 근처의 섬위에 돛을 設營한 참에 발레단이 이끄는 블리號가 지나치다가 無人로켓트의 조사를 첨부받았다.

장사꾼답게 발레난의 언어습득 능력은 뛰어난 편이어서 얼마 후에 英語를 마스터 해버렸다.

물론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도 적지 않다. 메스

클린인에게는 뉘다거나 물건을 던진다거나 하는 개념이 전혀 없다. 그러나 知性은 어떤, 종족에도 공통한다.

곤란한 大航海를 거쳐야 하는 일을 청부한 발레난이 마음속 깊숙히 커다란 야심을 품고있는 사실을 지구인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하여 발레난 일행의 대여행이 개시됐다. 랙랜드가 조종하는 地上車에 끌려 블리號는 대륙의 地峽을 넘어 여태까지 가보지 못했던 大洋으로 향했다.

重力의 使命

徐光云 訳(韓國SF作家클럽會長)

그 도중에 低重力 지대에 사는 大型종족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거대한 괴물을 물리치기도 하는 온갖 사건을 겪었다. 마침내는 앞길을 가로막는 낭떠러지를 밧줄과 도르래로 선박을 降下시키는 큰 모험까지 치렀다.

重力이 불기 시작하면 지구인들은 따라 갈 수가 없다. 위성궤도에서 관측한 地上의 기상이나 地形을 통신기로 전해줄 따름이다.

어떤 섬 근처에서는 역시 지네 모습의 글라이더를 가진 종족과 맞닥드려 끝이 卹족한 樺杭의 포격(?)을 받기도 했다. 이때 江바닥에 꽂힌 杭木을 뽑아내기 위해서 돈드라그마는 플라이

어(空人)가 코치한 대로 差動滑車를 제작하여 사용했다.

무서운 힘이 나오는 도구임을 알 수는 있으나 그 원리는 -자기네가 제작했음에도- 메스클린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찾고 있는 無人로케트는 둘레가 수백마일 되는 낭떠러지로 둘러싸인 台地の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아냈다. 그 낭떠러지 아래에 선박을 정박시키고 발레난을 비롯한 몇몇 조사대가 비교적 완만한 경사가 진 지점까지 멀리



에 위가서 台地를 올라갔다.

발레난은 낭떠러지의 끝에서 고개를 내밀고 불리號의 所在를 확인했다……분명히 本來의 메스클린인'이라면 성공할 수 없는 솜씨였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로케트를 찾아내서 그 해치를 열어 올리자마자 발레난은 假面을 벗어 던지고 말했다. 통신기의 카메라를 일부러 옆으로 제체 놓고선 지구인에 대하여 <이 無人로케트와 TV 카메라 통신기를 비롯한 지구과학의 비밀을 모조리 가르쳐 주지 않는한 이 이상 조사에 협력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메스클린인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통상적인 居住구역에서는 大氣 밀도의 관계로 사방의 地平線이 높이 솟아오른 것 같이 보이는 까닭에 자기들의 세계는 평반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 나름의 지도도 갖고 있으나 그것이 地表를 위에서 내려다 본 모양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를 테면 垂直방향의 인식이 결여된 생물인 것이다.

발레난의 요구에 지구인측은 당황했으나 렉랜드가 교섭을 맡아 科學이라는 것은 오랜 누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本質을 설명해 주었다.

결국 메스클린인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부터 점차 기술과 그 원리를 풀이해 주기로 타결했다.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지구 과학을 가르치는 학교도 만들어지리라

어쨌든 교육의 결과는 로케트의 解體 작업이 끝나기 전에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리號가 改造되고 판판으로 변했다. 고향으로 가는 긴 歸路도 이제는 그다지 고생스럽지가 않으리라. 그 試運轉도 실시됐다.

지금 40피트의 球形으로 부푸른 광목제 氣球은 덥혀진 大氣를 안속에 품고 서서히 地上을 떠나 바람을 타고 台地로부터 河口로 진입해 갔다.

작가와 작품

할·클레멘트(Hal Clement)는 1922년생, 1942년 「에스타운딩」誌에서 데뷔, 초기의 장편 <20억의 바늘> (1950년), <아이스월드> (1953년) 등에서는 미스터리 형식으로 지구를 찾아온 異星人을 취급하고 本編 이후의 <테네브라救援隊> (1970년) 등에서는 지구인측이 來訪자가 된다.

또한 그 후의 2편은 本 <重力의 使命> (1954년)의 등장인물과 중복이 있어 하나의 우주 미래사를 형성하게 된다.

그의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할·클레멘트는 專業작가가 아니라 高校의 자연과 학교 교사이며 본명은 해리·C·스텝스.

그는 작품의 무대를 당시 화제를 모은 白鳥座 61번 별의 伴星으로 삼고 아시모프의 협력으로 면밀하게 계산 설정한 일종의 思考實驗物로 전개시켰다.